

“ 인생의 무거운 짐 ”

■ 이종윤 원로목사

스페인의 격언 중에 예나 지금이나 조용한 짐이 없다는 말이 있다. 인간에게는 항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사람마다 크고 작은 짐이 있다. 어떤 짐은 눈에 보이나 정말 무겁고 어려운 짐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자기 홀로 져야 할 짐이 있다.

남이 대신 저줄 수 없는 짐이 우리 각자에게 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부모도 자식도 배우자도 대신 할 수 없다. 우리는 각각 다른 개체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도 죽음의 고개를 홀로 가야 한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 있는 동안 우리는 각자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고 자기에 대한 책임을 자신만이 져야 한다. 자기가 범한 죄에 대한 책임도 자기가 져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내가 해야 할 일이고 심판대 앞에서도 내가 대답해야 한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도 내가 해야 한다. 군중 속에 자신을 잃어버리거나 숨을 수도 없다. 좋은 교회 성도라고 단체적으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청교도 신학자 요나단 에드워드의 일기장에 “결단하자 그 대가가 비쌀지라도 바른 길로 가도록! 다른 이들이 비록 잘못된 길로 모두 가버렸다 해도 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나로 옳은 길로만 가게 하소서.”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악함을 자인하고 피조물됨과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야 하는 책임적 존재임을 깨닫고 살아야 한다.

서로 져야할 짐이 있다.

이것은 공동체가 지고 있는 짐을 말한다. 사회적, 국가적, 민족적 그리고 교회의 짐을 다른 이들과 함께 져야 한다. 형제나 이웃이 잘못된 길로 가면 그들에게 돌을 던지고 비난과 저주를 하지말고 그가 회개하고 바른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온유한 심정으로 그를 바로 잡아주는 것이 짐을 서로 지는 방법이다. 우리가 남에게 충고할 때 저주나 심판의 자세로가 아니라 어머니 같은 온유한 심령으로 해야 한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나 민족사회에 가장 큰 공헌을 하는 길은 자신이 먼저 바른길을 가는 것이다. 한 사람의 모범이 천 마디 논쟁보다 낫다. 콘스탄틴노플 사람들은 크리스소스톰 목사를 황금입술을 가진 이라 불렀다. 크리스소스톰 목사 한 사람이 바로 살고 바른 길을 가르침으로 세상이 바로 가게 되고 근심도 염려도 사라지게 되니 사람들은 태양 빛이 비쳐지지 않을지언정 크리스소스톰 목사의 설교가 그치지 않기를 원했다.

약하고 흠이 많고 더러운 인생을 분석 검토한 후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시지 않고 그들의 허점을 아시면서 그대로 부르셨고 믿어주고 격려하셨다. 3번씩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향해 부활하신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후 내 양을 치라는 큰 사명을 주신 것도 베드로의 회개한 양심을 믿어주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 희생의 법, 자신을 포기하는 겸손의 법이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한다. 남에게 희망을 주고 격려의 말을 하려면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

뒷면으로 계속☞

앞면에서 계속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야 할 짐이 있다.

의무를 거부했을 때 우리는 양심의 짐, 또는 우리를 짓누르는 죄의 짐을 내 힘으로는 질 수 없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 같은 짐을 내게서 가져다가 대신 저주신다. 모세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은 홍해 앞에서 옮겨 주셨다. 사방으로부터 옥여 땀을 당한 사도 바울의 짐도 하나님은 제거시키시는 대신 그 짐을 질 수 있도록 은혜로 힘을 주셨다. 우리는 무겁고 힘든 짐을 홀로 지려하거나 누구에게 전가시키지 말고 자신을 보던 눈을 하나님께 돌리고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든지 그 짐을 넉넉히 질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대신 저주실 것을 믿고 그에게 맡기고 나오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죄의 짐, 질병, 절망, 불신앙의 짐, 공포, 후회의 짐을 전능자, 전지자, 사랑 많으신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으라.

—한국장로신문 [1389호] 2013년 11월 16일에서 발췌—

English Worship Service	
[Room 802, 11:20 am]	[Pastor: David John]
* Call to Worship	John 4:24 Pastor
* The Apostles' Creed	Congregation
* Doxology	1 Congregation
Congregational Prayer	Deaconess Ae Soon Jang
Hymn	36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Matthew 9 :1-13 Pastor
Welcome/Fellowship	Congregation
Offering	Congregation
Offering Hymn	50 Congregation
* Offering Prayer	Pastor
Anthem	Congregation
Sermon	"Jesus' Authority to Forgive Sins" Pastor
* Hymn	287 Congregation
* Benediction	Pastor
* Lord's Prayer Song	635 Congregation
(* Please stand if you are available)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서울교회 QR코드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서준권 교육목사 윤누가	교육전도사 주원순 강남희 최근영
전도사(교육담당) David John Khokhar 선 교 사 강아름주한다, 전광해(아시아), 이은준강해정, 바켓잔(카자흐스탄) 스프로토티로이, 조남혜, (방글라데시), 이재울박병진(캄보디아), 전호진(미얀마), 조병연·김희정, 우상식·김정옥, 이삭, 비스타파, 사지, 예복(인도), 정상진홍성임(필리핀),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 · 오정녀(캐나), 김종일백순배(터키노동자), 홍규아·망 탕 쎌 코 카 마이 랑 사무알 레이 난 쟁 찬다 사우 키움 랑 호라 라레 벤 비에 마웅 차 짜우 미카렐 미안파 필리몬, 프로산포, 수레시 수바식 이경엽, 알로롱 비시누쁘도, 보디소프, 린퐁 수란준 방글라데시, 김태식 윤왕모 노신애 이금순 김명일 김덕수(군선교)	

	전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이종윤 Emeritus Pastor Lee Jong-Yun, Ph. D., D.D., D. D.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어떻게 주시나 ”

■ 사 53:10~12

본문은 고난 받는 주의 종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 당시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고난 받고 죽어야 할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유대 민족구원을 회복 할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처음으로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 역시 강한 부인을 했습니다. 베드로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마 16:23).

1. 인간은 의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사 46:12). 여기서 말하는 공의는 사회적 정의나 정치적 정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의 의를 의미합니다. 이사야는 인간의 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에 의하면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져있다고 말씀합니다. 인간들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악하고 본능적으로 행하는 악에는 발이 빠릅니다(사 59:2-11). 이처럼 이사야서에 기록된 의는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준을 말합니다.

2. 하나님은 의를 가지고 찾아오신다.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시”(사 59:16). 하나님께서는 의가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결심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의가 없으므로 불의하게 된 인간의 상태를 보시고 안 타귀워하시고 가슴 아파하시며 자기의 공의, 즉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공의를 감웃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웃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겹웃으로 삼으시고”(사 59:17).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처럼 의 와 구원으로 중무장을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의 구원과 하나님의 의는 동의어입니다.

3.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 의를 주신다. 11절의 ‘나의 의로운 종’ 은 1인칭 화법으로 ‘나’ 는 하나님 ‘나의 종’ 은 하나님의 종 혹은 주의 종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서에 ‘주의 종’ 이라는 말이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는데 ‘주의 종’ 은 하나님의 메시아임을 의미 하며 유대인들도 주의 종을 메시아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의 고난 받는 주의 종을 메시아로 인정하면서도 메시아는 고난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이방인들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방인을 대신해서 고난을 받는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성경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 53:5)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바로 이사야서 53장에 등장하는 주의 종이며,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라고 반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주의 종이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주의 종이 자신의 영혼, 즉 생명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될 것! 그와야 하나님의 뜻을 성취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이며 인간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여 죽음으로 죄인을 의롭게 할 수 있습니다(이사야 53:11). 구약성경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 외에도 물 본듯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힘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은 행위구원을 가르치고, 신약은 은혜로 구원을 가르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맺는 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빌 3:9).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부터 오는 의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도달하여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없다면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주시는 것뿐입니다. 이미 구약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신 주님께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 김철홍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서명철 목사	홍일성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서준권 목사	노문환 장로
III 오후 2시	조원영 목사	서문석 장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인도: 조원영 목사 설교: 김영호 선교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시 62:1-2 인 도 자

찬 송 370(455) 다 함 께

기 도 안성현 집사

성 경 고전 3:1-9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MISSIO DEI" 설 교 자

* 찬 송 505(268) 다 함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인도, 설교: 조원영 목사

기 도 이선희 권사

성 경 벧후 3:11-18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Sermon ...자유인인가 노예인가?... 김철홍 목사

* 찬 송 Hymn585(384)...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새벽기도회(인터넷 영상)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이경화 · 홍혜란 김양안박수강

설 교 서준권 목사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김현정11	송재근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인	윤주일	그레이스앤드벨	송재일		
III 부	임마누엘	임범창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유태왕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묶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라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해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셨느니라 (사 53:12)	지난주 성구		
영어예배	예루살렘								
수요 I 부									
수요 II 부	은 빛	박래경	김윤지	홍혜란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인터넷 영상

교 회 소 식

◆ 모 임

1. 선교회, 전도회 회장단 월례 모임 / 29일(주) 오후1시 202호
2. 도르가 월례회 / 29일(주) 오후1시 706호

◆ 알 림

1. 101호 예배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청년2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에바다부 예배 : 주일 오후 1시-2시30분
3. 603호 예배
소망부 :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4. 609호 예배
디아스포라부 : 주일 오후 1시-2시
5.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6. 706호 예배
영아,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7.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8. 금주 수요예배는 오후 7시, 101호에서 한 번 드립니다.
9. 의료 상담 / 정현구(치과), 이경진(성형외과) 주일 오전 10시10분 - 오전11시까지
1층 서적부에서 의료 상담을 합니다. ※ 전화 예약 010-8993-5558
10.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 (310호)
※ 전화 예약 010-2376-3892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면에서 계속

11. 김철홍 목사 소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B.A.)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미국 Union Theological Seminary(S.T.M.)
미국 Fuller Theological Seminary(Th.M., Ph.D.)
장로회신학대학교 신약학 교수
전, 서울교회 협동목사

지난주 출석현황

주일1,2,3부	찬양예배	교회학교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910명	242명	302명	1,454명	158명

수입, 지출 내역보고(10/22)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10월 22일	헌금	32,293,670	
"	특별예배비		1,062,242
"	교회학교운영비		277,000
"	선 교 비		800,000
"	구 제 비		1,650,000
"	비전2020		800,000
"	출 판 비		270,000
"	인 건 비		11,044,000
"	소모품비		341,000
"	통 신 비		1,636,550
"	차량유지비		577,400
"	복리후생비		1,773,600
"	수도광열비		1,246,000
"	수선유지비		552,000
"	식당운영비		2,206,000
"	합 계	32,293,670	24,235,792